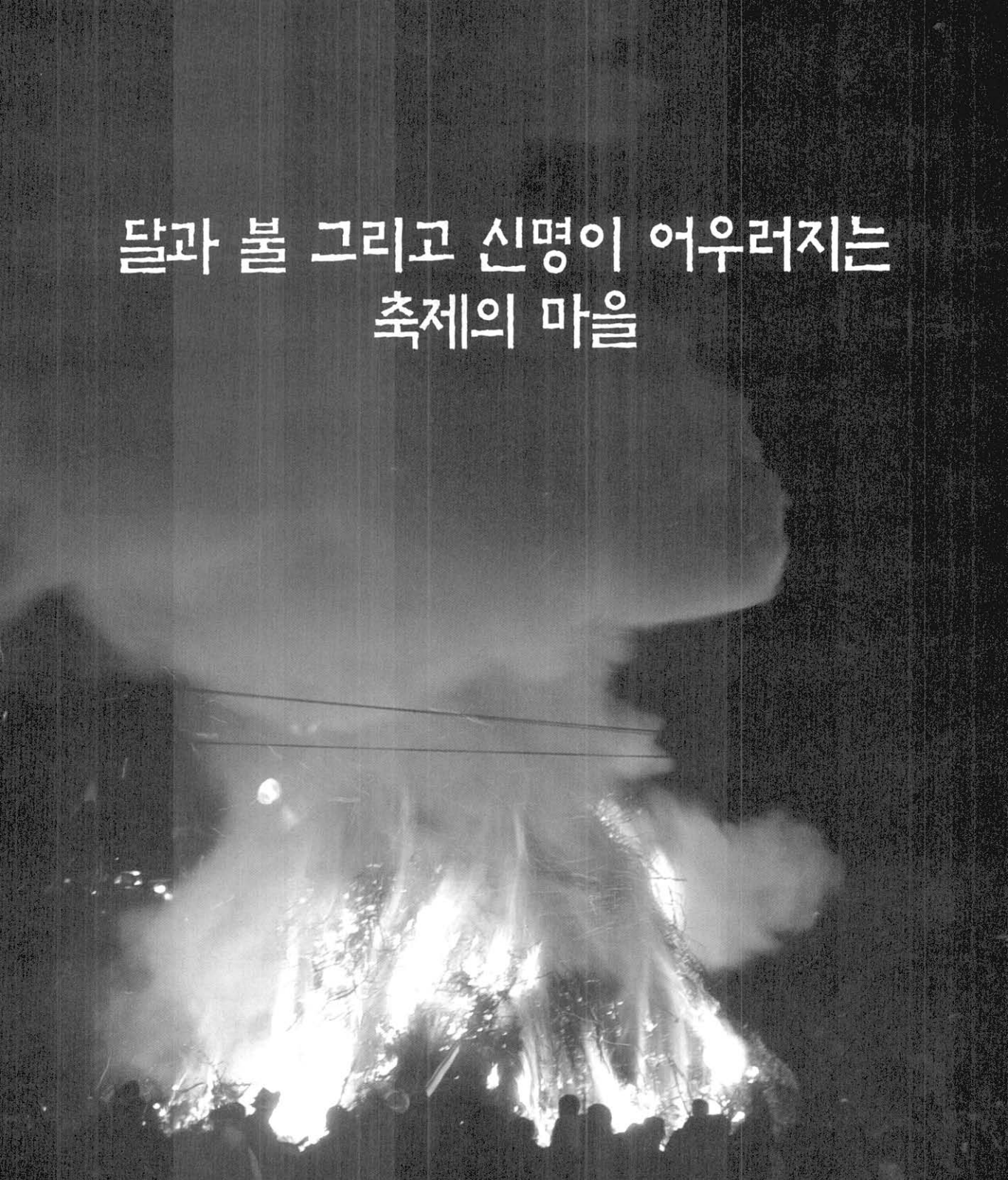


달과 불 그리고 신명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을

A large bonfire is burning brightly at night, with thick white smoke rising into the dark sky. The fire is the central focus, illuminating the scene. In the foreground, the dark silhouettes of a crowd of people are visible, looking towards the fire. The background is mostly dark, with a few distant lights and the faint outline of a building or structure.

“이 마을을 들여다보니 칠구영산에 오복이 가득하구나. 모든 액은 대천 앞바다에 확 날려버리고 …… , 송아지를 낳아도 꼭 세 마리를 낳고, 돼지가 새끼를 까도 열두 마리가 나올 것이며, 논 한 마지기에서 그저 쌀이 스물넉 섬이 나올 것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집에 풍년과 만복을 내려 주시오소서.”

새해 처음으로 뜨는 보름달을 맞이하며 한해의 액운을 털어내는 대보름은 가히 세시풍속의 으뜸이다. 한자로 상원(上元, 으뜸되는 밤)이라고 한 데서 보듯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으로 때를 가렸던 농경문화와 대보름은 귀하고도 친하다. 특히나 우리 민족은 대보름을 풍요의 원점으로 삼아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동제나 줄다리기 등 뜻 깊고 큰 행사들을 열어왔다.

충남 금산의 장동마을은 대보름잔치를 제 모습에 가깝게 재현한다고 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름하야 금산장동마을 달맞이축제, 달과 불과 바람의 축제이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축제는 첫날 달집짓기를 시작으로 축원굿과 함께 하는 길놀이, 산제와 탐제, 다리밟기놀이와 유희불놀이마당, 금산농악판굿이 이어진다. 이틀째에는 '토끼몰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뒤, 연 체험교실과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린다. 이밖에도 송액연날리기, 판굿, 달불놀이와 불꽃놀이, 달마시기와 뒤풀이 마당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달과 불과 바람의 축제

형형색색의 깃발이 펄럭이는 진입로를 따라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충청남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리목이 마중하고, 마을 한 가운데 자리한 넓은 놀이터에는 대보름 밤 모든 액을 태워버릴 달집이 자리하고 있다. 축제마당에는 벌써 윗놀이판에 불과해진 얼굴들, 떠들썩한 말소리가 그득하다.

객들을 맞는 인심도 후해 천 원 한 장이면 돼지숙육이 푸짐하게 접시를 메우고, 양껏 채운 밥주발에 밑반찬은 덤으로 달려온다. 축제는 참가자들이 함께 짓는 달집짓기에서 시작한다지만, 10여 미터를



홀쩍 넘는 커다란 달집은 주민들이 미리 준비해 놓아, 외지에서 온 구경꾼들에게는 해질녘 어스름의 길놀이와 달이 뜬 후 올리는 탐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달집짓기는 보름달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언덕이나 산기슭, 논 가운데 달집이라는 집을 짓고 보름달이 떠오름과 동시에 달집을 태우는 놀이이다. 달집은 서너 개의 막대기를 한 쪽 끝에 묶고 적당한 간격으로 세운다. 달이 떠오르는 동쪽만 터놓고 나머지 면은 짚이나 대나무, 소나무 등으로 막으면서 일정한 형태를 이룬다. 이 때 생솔가지나 물에 적신 짚같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속에 채운다. 이것은 달집이 너무 빨리 타는 것을 막고 연기를 내뿜기 위함이다. 연기가 많이 나와 풍년이 든다고 해서 이웃마을과 경쟁을 하면서 달집을 태운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이 달집 주위를 돌면서 풍년을 빌고 액이 물러가기를 비는 것이다.

누군가 건네준 탁주 한 잔을 들이키며 행사를 주관하는 장동마을민속보존회 황영수 회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명색만 남은 마을 축제를 부활시킨 장본



잡귀나 귀신이 들어오는 마을어귀 길목에 돌을 쌓고 열두 발 새끼줄을 칭칭 감아 소원을 빈다.

인이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싶기도 했지만 마을 공동체를 되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한다. 열 두 해를 맞는 축제는 해를 거듭 할수록 나름의 구색을 갖추어서 올해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지정 축제가 되었다. 하지만 공식행사다운 구색은 딱딱한 의례도 덤으로 가져오는지...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대화를 막고, 행사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접하게 되는 긴 말들이 이어진다. 코앞에 닥친 선거판 탓인가. 깍듯이 인사하며 손 내미는 사람들이 좌중을 휘젓는다. 어찌하겠는가, 이 또한 이미 풍속이 되어버렸으니 축제마당이라고 물리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에게 제관이 산제를 마치고 내려오면 길놀이가 이어지고 농악대를 따라 마을 입구에 서있는 탑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잡은 돼지를 비롯해 새 음식으로 상이 차려지고 제상

앞에서 축관이 독축(讀祝)을 한다. 탑제는 잡귀와 부정을 막기 위하여 황토와 금줄을 치는 제단정화, 탑신과 머릿돌에 문종이와 새끼줄을 두루는 새옷 입히기, 악귀를 몰아내는 풍물패들의 오방돌기, 깨끗한 물을 제단 주변에 세 번 뿌리는 부정풀이, 제물진설, 촛불점화, 강신 및 독축, 천신소지-지신소지-제관소지-대동소지 순으로 소지올리기, 탑돌이와 음복으로 되어 있다.

장동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네 마을들은 제각각의 탑을 품고 살아왔다. 잡귀, 잡신이 들어오는 마을 어귀 길목에 사람들은 돌을 쌓고 우리 생명의 텃줄 처럼 열두 발 새끼줄을 칭칭 감아 소원을 빈다. 할아버지탑, 할머니탑이라 불리는 이 탑은 마을 입구에서 못 생명을 보살피듯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다. 금산 또한 돌탑이 많은 고장이다. 스스로 돌탑문화의 한 중심임을 자처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의 원형질인 돌탑을 통해 우리는 남으로 북으로 그리고 인류 문화의 시원, 생명의 근원으로 다가서서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간다.

하늘로 올라 별이 되는 불

탑 여기저기에 촛불을 세우고 소지를 올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표정들이 보인다. 세상살이가 힘에 부친 중생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지불에 태워 보내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본다. 촛촛히 내리는 짙은 눈발에 달이 덮였지만 탑을 둘러싼 촛불은 송송이 별빛이 되고, 제살 태우며 날아오르는 소지불은 휘영청 달빛을 대신한다.

탑제를 마친 사람들은 이제 더욱 친숙한 생명을 찾아 나선다. 마을 앞 개울에 불을 띄우기 위함이다. 달과 불의 만남은 물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애잔해진다. 바가지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심어 불을 피우고는 개울에 흘려보낸다. 흐르는 물을 보며, 꺼질 듯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한해살이 꺼지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가기를 기원한다.



한해살이 꺼지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가기를 기원하는 불 담은 바가지를 냇가에 띄우고 있다.

지붕 타고 달린 박이 아니라 주황색 플라스틱 바가지. 하지만 반투명의 주황빛은 심지의 불빛을 적당히 내보내 제 스스로 개울물 타고 흐르는 달이 되니, 어린 시절 운동회 때 무르팍 깨가며 달렸던 덕에 받았던 바가지 이후 이처럼 훌륭한 용처를 만나보지 못했다

달맞이에 제격인 마을

줄기차게 내리는 눈 탓에 외지 사람이 드물지만 덕분에 잔치의 제 모습을 보게 되는 행운이 따른다. 이튿날 장동마을을 다시 찾으니 조금은 익숙해진 눈썰미에 산과 들 마을의 모양, 사람들의 표정이 들어온다. 금산은 그 지명이 곧 금수강산의 준말이다. 그 만큼 아름다운 산세를 지니고 있다. 3,000여개의 올망졸망한 봉우리가 있고, 그 안에 700여개의 소분지가 있으며 각 소분지 속에 470여개의 마을들이 있단다. 장동마을에서는 금산의 명산인 진악산(進樂山)이 한 눈에 보인다. 게다가 마을과 진악산 사이에는 적당히 펼쳐진 평야가 있

으니 산과 들이 달맞이를 하며 놀기에 맞춤형 형세다. 직접 빛은 두부와 목이 일품인 이 마을은 금산의 전통 민속인 탐제와 디딜방아 놀이가 원형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곳이기도 하다. 결판진 놀이판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먹거리와 놀거리까지 갖추고 있으니 달맞이 축제에는 제격인 셈이다.

축제마당이 시끌벅적해진 것은 마을 대항 지게 율놀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른 허벅지만한 율을 지게에 지고 켜 걸음에 달려와 널브러뜨리는 지게율놀이는 과연 농군다운 발상이다. 경험 없는 이들은 낙장이나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일 듯하다. 판에 끼어들지 못하는 구경꾼들을 위해 마을 회관 안에서는 연 만들기가 진행된다. 금산민속연보존회 회원들이 나와 친절하게 가르치니 한 식경 안에 연 두어 개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 그러나 연은 빨리도 멋지게도 아닌 잘 날아올라야 제대로 만든 것이니, 고수님들의 말을 잘 따라야 하늘을 차고 오르는 연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연 날리기 시범에 이어 각기 만든 연을 날려본다. 조금이라도 균형이 틀어진 연은 땅바닥 언저리를 벗어날 줄 모른다. 긴 꼬리 가오리연이야 어지간하면 날아주지만 튼실한 방패연은 잘 만들기도 해야 하거니와 움직이는데 기술도 필요하다. 퍼덕이며 날지 못하는 연들의 주인들은 아마도 작은 손놀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함을, 볼품없는 물건에도 선조의 지혜가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달따세 달따세 하늘잡고 달따세

날 저물기를 기다리며 본격적인 놀이판을 열기 위해 풍물굿



지게 율놀이를 즐기고 있는 마을 주민



충남 금산 장동마을 축제는 달과 불과 바람의 축제라 불리고 있다.

이 시작된다. 나아내풍물단이 벌이는 판굿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와 전주대사습놀이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장동마을의 디딜방아뱅이놀이와 함께 금산을 대표하는 민속놀이이다.

‘금산풍물굿은 집단적인 신명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의 판을 새롭게 짜는 금산의 전통 민속예술이다. 개인의 기량보다는 전체의 신명이 우선하고 화려하기보다는 담백한 멋이 담겨 있는 풍물굿이기에 어느 풍물굿보다도 내고 달아 맺고 푸는 생명의 순환 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단순하지만 힘이 실려 있는 가락과 춤으로 하여 사람은 즐겁고 편안하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신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 금산의 전통 민속예술 <금산문화원>

홉뿌리는 눈발에 웅크렸던 몸들이 한바탕 휘돌

아 치는 바람에 퍼덕이는 몸짓으로 살아나면 민족극단 우금치의 마당극 공연과 금산사물놀이굿이 계속된다. 뒤 이어 디딜방아액맥이놀이. 정초를 맞이하여 마을의 평안을 축원할 때나, 액운이 닿지 않은 다른 마을의 디딜방아를 훔쳐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이 돌거나 날이 가물면 금산의 아낙들이 벌이는 민속놀이이다.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는 방아를 일년 중 가장 음기가 왕성한 대보름에 여인들끼리 생명의 온전함을 기원하면서 온갖 액

을 묶어 재생을 믿으며 상여소리를 하면서 훔쳐온다. 아마도 액운이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나타나므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데서 연원했을 듯하다.

속절없이 내리는 묵직한 눈발이 행사 진행을 힘들게 하지만 이 또한 축제에 걸맞은 어울림이다. 어찌면 달보다는 흙뻑 내리는 눈 또한 멋진 구경거리가 아니겠는가. 눈이라도 실컷 구경하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이은 놀이마당에 흥을 실어본다. 간간히 추임새도 넣고 걸쭉한 사설에 실어 욕지거리라도 내뱉고 나면 가슴에 담았던 살과 액이 절로 풀린다.

갈라설 수 없는 사랑, 연리지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연리목에서는 소원빌기와 촛불잔치가 진행된다. 연리목(連理木) 혹은 연리지(連理枝)는 뿌리는 다르나 몸뚱이가 하나로 되어 갈라놓으면 결국 둘 다 죽는다는 나무다. 결코 갈

라설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연리목은 시인 백거이가 장한가(長恨歌)에서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로 그리기도 했다.

在天願作比翼鳥(재천원작비익조)
 하늘에 있어서는 원컨대 비익조가 되고,
 在地願爲連理枝(재지원조연리지)
 땅에서는 원컨대 연리지가 되기를 원하네
 天長地久有時盡(천장지구유시진)
 천장지구라도 다할 때가 있겠지만,
 此恨綿綿無絕期(차한면면무절기)
 이 한(恨)은 끝내 끊일 날이 없겠다네.

원래는 부부나 연인, 부모자식 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장동마을 팽나무 연리목에 소원을 빌면 결혼, 금슬, 해로는 물론 아들 낳기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 절절한 사랑을 지키는 나무에 아들 낳기를 비는 사람들을 정작 연리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도 아들을 낳는 게 금슬과 해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던 시절에 효험 있는 귀물을 찾아 나선 이들이 덧붙인 것이리라.

달집을 태우는 달불놀이로 축제는 절정을 맞이한다. 전날 힘들여 쌓은 달집을 활활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는 순간 올 한해 액운도 함께 날아 허공으로 사라진다. 달집이 만든 커다란 달빛 주위로 유황불놀이(쥐불놀이)가 작은 별빛들을 만들어낸다. 별은 나이며 나는 별이다. 달은 못생김이며, 못생김은 달이다. 세상 모두를 살리는 별이 되고 달이 되어 천지(天地)를 이룬다.

“원컨대 연리지가 되어 못생김을 절절하게 사랑하는 별이 되게 하소서!”

〈김종철〉



* 비익조 : 날개가 하나 밖에 없어서 두 마리가 몸을 맞대고 함께 날갯짓을 해야만 날 수 있는 새.